

러시아: 농수산물 순수출국 전환, 수출규제 확대, 우크라이나 침공¹⁾

(원저자) 나가토모켄지(長友謙治)*

허 덕**, 김종진***

1. 머리말

세계 경제는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하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2021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섰다. 러시아 경제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의 급속한 회복에 따라 발생한 세계적인 물가상승 또한 러시아에 미쳤다.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곡물 등의 국제가격의 상승은 2021년에 러시아의 비원이었던 농산물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의 전환이 실현되는 큰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식품 등의 가격 상승은 러시아 국내에서도 진행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하에서 물가 대책의 목적으로 도입한 농산물 등의 수출 규제를 2022년에도 계속·확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 농산물 등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설명에 역점을 두면서, 러시아의 농업·농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 작성 중이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시작하였다. 이 전쟁은 세계 정치·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원칙적으로 2022년 3월 말까지의 상황을 기술하였다.

1) 이 글은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 3, (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20331_R03cr09_03.pdf)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일본PRIMAFF(농림수산물성 농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책임자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KREI 농정포커스 205호(2022년 3월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권태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식량 안보 영향’, 「세계농업」 2022년 5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관련하여 우크라이나의 농업현황에 관해서는 차원규, ‘우크라이나 농업현황’, 「세계농업 정보」, 2022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역자 주)

2. 2021년 러시아 경제

(1) 거시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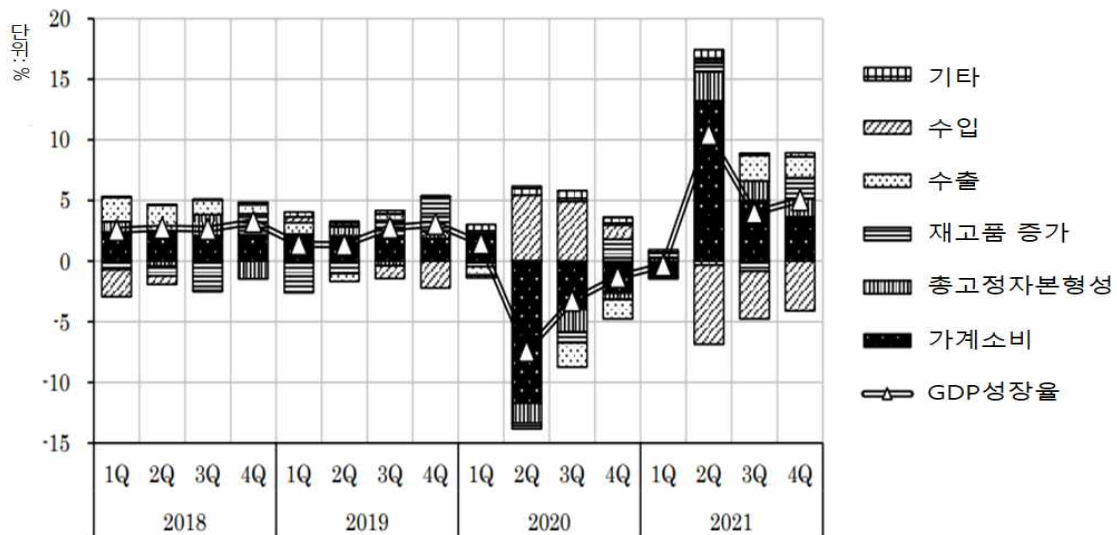
1) 마이너스 성장으로부터의 회복과 불투명한 향후 전망

2021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4.7%였다³⁾.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러시아의 경제성장 동향과 그 요인을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중 -2.7%였으며, 같은 해 제2분기(4~6월)에는 -7.4%로 크게 떨어졌다. 이는 가계소비나 투자(총 고정자본 형성)가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이 시기에 러시아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유행의 제1파로 인하여 최초의 록다운(Lock-down, 도시봉쇄)이 실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이너스 성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감소폭은 점차 축소되어 2021년 2분기에는 10.5%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후에도 3분기 4.0%, 4분기 5.0%로 플러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소비 및 투자의 회복에 더해 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이 이에 기여하였다.

그림 1 러시아의 지출항목별 GDP 성장률 기여도



자료: 러시아 연방통계청으로부터 田畑(2021)을 참조하여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3) 러시아의 GDP 관계 수치는 2022년 4월 8일자로 러시아연방 통계청 웹사이트에 게재된 값을 이용하였다.(원저자 주)

2021년 9월 정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코로나19 제4파는 11월에 정점을 찍었고, 2021년 10월 30일~11월 7일에는 전국 일률적인 비노동일로 다시 록다운이 이루어졌다. 같은 해 제4분기에 있어서 가계소비 성장 축소에는 그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전분기보다 성장이 가속되었다. 이후 2022년 들어 코로나19 유행 제5파가 시작되어 2월 성수기에는 1일당 감염자가 20만 명에 달하였다. 하지만, 이 유행은 3월에는 진정되었다⁴⁾.

2월 이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는 구미 제국이나 일본이 러시아의 외화 준비 동결이나 주요 은행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⁵⁾)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한 강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경제, 또 곡물 수출 등을 포함한 러시아의 무역에 향후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2) 상승하는 유가와 루블 시세의 괴리

<그림 2>에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말까지의 유가 및 루블화의 대미 달러 시세 동향을 나타내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2020년 초 이 두 가지의 폭락과 그 후의 회복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둘러싼 내외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루블화 시세의 상승을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으로의 러시아군의 집결을 둘러싼 NATO⁶⁾ 제국과의 대립 격화나 향후의 불안으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약세가 진행되었다(西濱, 2022).

그리고 같은 해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을 개시하자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편, 이에 대해, 러시아 중앙은행이, 2월말에 정책 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하는 외에 수출에 의한 외화 수입의 루블 전환 의무화나 외화 유출 방지 조치를 강구하였다(리투바, 2022). 그 결과, 3월말에는 루블의 대달러 시세는 1달러 80루블대까지 되돌리고 있다⁷⁾.

4)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에 따르면, 3월 31일 시점 러시아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신규 확진자 수 19.3천명, 동 사망자 수 345명이었다.(원저자 주)

5)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는 전 세계 은행들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표준화된 금융 정보를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계은행 간 금융전자통신기구이며, 금융협동조합 형태의 비영리기관이다. 1973년 유럽 및 북미 240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의 결제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했으며, 본부는 벨기에에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링,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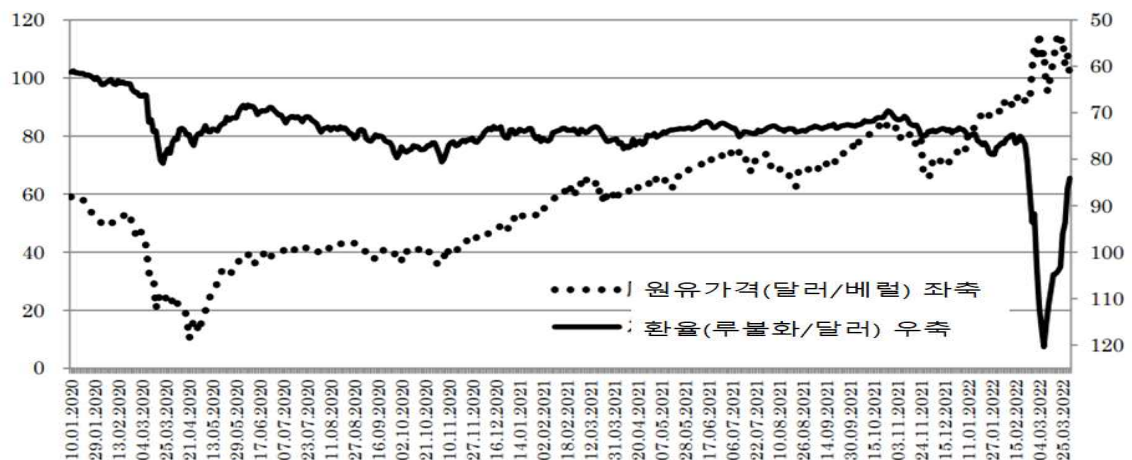
6) 북대서양 조약 기구(北大西洋條約機構)는 냉전이 시작된 1949년, 집단안전보장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동맹이다. 본부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다. 흔히 쓰이는 두문자어인 NATO는 영어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게르만어군에 속한 나라에선 NATO로 읽지만 프랑스, 스페인 등 로망스어군에 속한 일부 나라에선 'Organisation du Traité de l'Atlantique Nord'를 줄인 OTAN으로 읽는다. 전세계에 냉전의 시작을 알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냉전 시기 중립국의 위치를 지켰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2022년 가입 신청서를 냈다. 또한 나토는 대서양을 넘어서서 태평양에 있는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서 서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하며 실제로 계속해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농업 분야에의 영향을 생각해 보면, 루블화 약세는 러시아의 수출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의 곡물이나 유량종자(油糧種子)에서는 당분간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수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루블화 약세는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수입 기자재에 적지 않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의 농업 생산자에게 있어서 기자재의 가격 상승은 수익성 저하의 요인이 된다.

곡물 등의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는 루블화 하락에 의한 코스트 상승의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루블화 시세의 동향과 농업의 수익성이나 주요 작물의 작부예의 영향 등을 향후에도 주시해 갈 필요가 있다.

그림 2 원유가격과 루블화 상장 추이(2020년 1월~2022년 3월)



자료: USEIA(원유가격 Cushing OK Crude Oil Future 1), 러시아 연방중앙은행(환율)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3) 물가 상승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

2020년에는 코로나19 유행 등에 따라 러시아 경제가 후퇴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악화되는 가운데, 곡물 제품이나 식용유 등 주요 식품의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 때문에 12월에는 곡물이나 유량종자의 수출 규제를 포함한 가격 급등 대책이 결정되어 2021년부터 실시되었다.

2021년에 들어서자 러시아 경제는 회복으로 향하였고, 소득 수준이나 실업률 등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식품 등의 물가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4%에 비해 소비자 물가지수는 2021년 12월 시점에서 종합 108.4(2020년 12월: 100)로 목표를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식품은 110.6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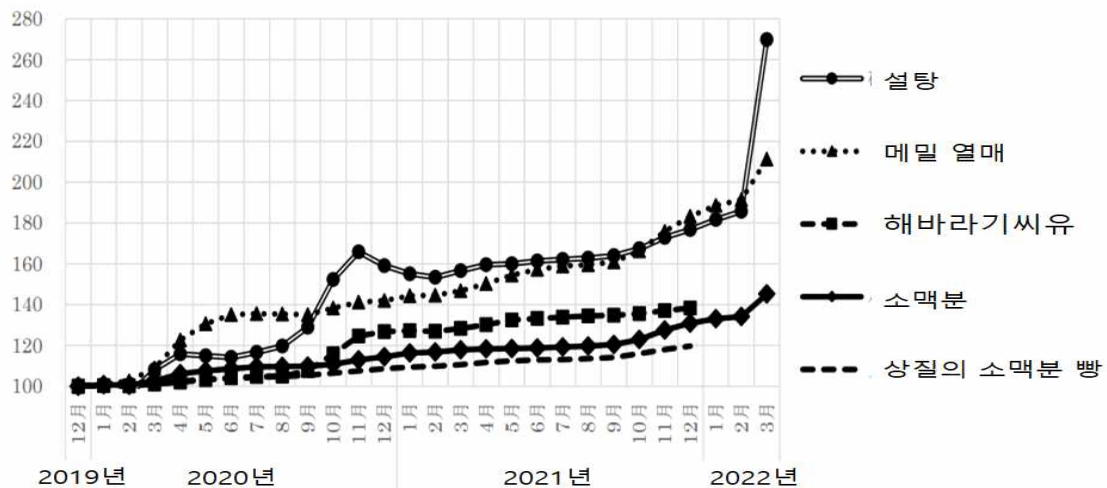
7) 러시아 중앙은행은 루블의 대달러 시세가 대체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황에 따라 정책금리를 개정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11일에 17%, 5월 4일에는 14%로 인하하였다.(원저자 주)

물가 상승은 2022년 들어서도 계속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후인 3월에 급등하였다. 2022년 3월의 소비자물가는 2021년 12월에 비해 종합, 식품 모두 10.0%, 특히 과일은 28.6% 상승하였다(이상 수치는 러시아 연방통계청 웹사이트).

이에 반해 러시아연방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2021년 중에 7회, 2022년에 들어서부터 2회의 정책금리 인상을 실시하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28일에는 9.5%에서 20.0%로 대폭 인상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요한 식품의 가격은 2019년 12월 이후 상승을 계속하고 있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림 3 사회적 주요 품목(식품)의 소비자가격 동향(2019년 12월: 100)



자료: KMISS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2019년 12월을 100으로 한 가격은 2021년 12월 시점에서 메밀열매 183, 설탕 176, 해바라기씨유 138, 밀가루 131, 상질의 밀가루 빵 120이 되었다. 나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3월에는 설탕 270, 메밀열매 211, 밀가루 145로 급상승하고 있다⁸⁾. 이러한 상황 하에서 러시아는 곡물과 유량종자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상술하도록 한다.

4)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농업

2021년 농업 총 부가가치액 성장률은 -1.0%였다. 농업은 2012년에 가뭄에 의한 흉작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에는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였다. 러시아 경제 전체가 부의 성장을 한 2015년 및 2020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다(표 1).

8) 해바라기씨유와 고품질 밀가루 빵에 대해서는 원저자가 이 글을 집필하는 시점에서 2021년 12월 이후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원저자 주)

2021년에 농업의 총 부가가치액이 9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유로는 경종농업부문에서는 곡물 수확량이 사상 두 번째 풍년이던 전년에 비해 -9.0%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 그리고 축산부문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⁹⁾), 아프리카돼지열병(ASF¹⁰)과 같은 질병의 발생 등으로 축산물 생산의 성장이 억제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¹¹⁾.

표 1 러시아 실질 GDP 성장율과 농업의 성장율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실질 GDP 성장율 (%)	- 2.0	0.2	1.8	2.8	2.2	- 2.7	4.7
농업 성장율 (%) ^{주)}	1.9	2.0	1.7	1.0	3.4	0.5	- 1.0

주: ‘농업성장율’은 경종농업, 축산업, 수렵업, 관련 서비스의 총부가가치액의 대 전년도 증가율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2) 무역

러시아의 무역은 석유·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광물자원 수출에 의해 고액의 무역 흑자를 획득하는 구조이다. 흑자액은 주로 원유 수출의 동향에 의해서 변동한다. 2021년 무역흑자액은 전년 감소에서 회복하여 1,982억 달러(전년대비 88%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는 가운데, 러시

9) Avian Influenza(AI). 조류독감이라고도 한다. 주로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인간에게 옮을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옮으면 치사율이 정말 높다. 구제역과 함께 가축전염병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인체에 감염되지 않는 저병원성 인플루엔자와 인체에 감염되는 인플루엔자가 섞여 인체에 감염되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탄생할 수도 있다. 고병원성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되며, 사람에게 감염 사례는 적으나 치사율이 30%~60%에 달한다. 대표적으로 H5N6, H5N1, H7N9가 있다. 물론 치사율이 높은 만큼 전염성 자체는 낮았지만, 그렇다고 안심해도 안 된다.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므로 닭고기, 오리고기, 달걀은 꼭 익혀서 먹으면 매우 안전하다. 다만 식당에서 오리를 사용한 집기를 다른 곳에 사용하여 묻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사실 애초에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계란을 낳지도 않고, 일단 조류독감이 발견되면 인근 지역을 방역대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가금류와 알 등을 모조리 살처분 및 폐기해버리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출처: 나무위키, <https://namu.wiki/w/>)

10)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따라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질병을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은 감염되지 않고 돼지와(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는데, 사육돼지와 유럽과 아메리카대륙의 야생멧돼지가 자연숙주이다. 아프리카 지역의 야생돼지인 혹멧돼지(warthog), 숲돼지(giant forest hog) 또는 bushpig는 감염이 되어도 임상증상이 없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보균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돼지 말고는 유일하게 Ornithodoros spp. 에 속하는 물렁 진드기(soft tick)가 이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다가 돼지나 야생멧돼지를 물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개요’,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africa_pig_fever.jsp)

11) 제3절 (1) 참조.(원저자 주)

아 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수입액이 618억 달러(전년대비 27%) 증가하는 한편, 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액이 1,545억 달러(전년대비 46%) 증가하였기 때문이다(<표 2> 참조).

표 2 러시아의 무역 구조

(단위: 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액	총액	3,435	2,857	3,573	4,503	4,243	3,371	4,916
	농수산물	162	171	207	250	248	296	359
수입액	총액	1827	1,824	2,279	2,387	2,446	2,317	2,934
	농수산물	266	251	290	298	300	297	339
차액	총액	1,608	1,032	1,294	2,116	1,797	1,054	1,982
	농수산물	- 104	- 80	- 82	- 48	- 51	- 2	20

자료: 2020년까지는 각 년의 러시아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2021년은 동 청의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러시아의 농수산물 무역은 지금까지 곡물 등의 원료 농산물을 수출하는 한편, 식육이나 가공 식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수입하는 구조 하에서 수입 초과를 계속해 왔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루블화 가치 하락이나 구미 제국의 경제 제재에 대한 식품 수입금지 조치¹²⁾ 발동을 배경으로, 식육을 중심으로 수입액이 감소·정체하였다. 한편, 곡물, 식물유, 생선 등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증가한 결과, 농수산물의 무역 적자액은 크게 감소하여 왔다.

2021년에는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농수산물 수입액이 339억 달러로 증가(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한편, 수출의 중심이 되는 곡물이나 식물유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출규제 발동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 상승에 의해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농수산물 수출액이 359억 달러로 증가(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그 결과, 농수산물 무역의 수지가 처음으로 2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다¹³⁾.

12) 해당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2021년 9월에 다시 1년간 연장이 결정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게 되었다(제4절 (4) 참조).(원저자 주)

13) 농수산물 무역의 자세한 내용은 제3절 (2) 참조(원저자 주)

3. 2021년 러시아 농업생산·농산물 무역동향

(1) 2021년 농업 생산 동향

1) 경종 농업

러시아의 주요 경종작물의 수확량 추이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21년은 주로 날씨의 영향으로 곡물·두류(이하 단순히 ‘곡물’이라 함)가 전년도에 수입된 반면, 유량종자, 사탕무 등은 전년을 크게 웃돌았다¹⁴⁾.

표 3 주요 경종작물의 수확량

(단위: 만 톤)

	연평균치							2017	2018	2019	2020	2021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곡물·두류	10,426	8,795	6,510	7,883	8,518	9,351	12,483	13,554	11,325	12,120	13,346	12,140
밀	4,355	3,817	3,430	4,495	5,226	5,354	4,837	8,600	7,214	7,445	8,590	7,606
라이맥	1,245	876	538	488	347	277	216	255	192	143	238	172
보리	2,202	2,377	1,421	1,777	1,660	1,683	1,940	2,063	1,699	2,049	2,094	1,800
연맥	1,258	1,050	655	561	494	483	470	546	472	442	413	378
옥수수	330	184	141	215	420	1,023	1,361	1,321	1,142	1,428	1,388	1,524
기타 곡물	593	238	192	174	217	307	309	343	264	278	279	277
두류	443	254	132	174	155	224	349	426	344	334	345	384
공예작물												
사탕무	3,318	2,166	1,402	1,853	2,712	4,088	4,671	4,191	4,207	5,435	3,392	4,120
유량작물	-	380	381	526	798	1,254	1,926	1,650	1,953	2,277	2,125	2,485
그 중 해바라기	312	310	333	451	631	884	1,259	1,048	1,276	1,538	1,331	-
대두	65	47	31	48	87	199	389	362	403	436	431	476
유채종자	-	14	13	20	65	110	183	151	199	206	257	279
기 타	-	9	5	7	14	61	96	88	78	97	105	-
감자	3,588	3,681	3,183	2,836	2,576	2,525	2,165	2,171	2,239	2,207	1,961	1,830
채소	1,117	1,023	1,051	1,123	1,168	1,289	1,369	1,361	1,369	1,410	1,386	1,348

주 1: 사료작물(목초 등)에 대해서는 계재를 생략함.

2: 1986-90년은 보리는 보리만, 라이맥은 라이맥만의 수치이며, 겨울보리, 봄라이맥은 ‘기타 곡물’에 포함되어 있음. 1991년도 이후에는 ‘보리’, ‘라이맥’ 모두 겨울작, 봄작 모두를 포함한 수치임.

3: 유량종자의 수치는 2010년까지는 건조조정 전, 2011년 이후는 건조조정 후, 해바라기에 대해서는 2021년 건조조정 후 수치가 미공표. 건조조정 전의 수치는 1,654만 톤.

자료: 러시아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등에서 원저자 작성. 2021년 수치는 EMISS에 의함.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14) 이하, 2021년 경종작물의 작황에 대해서는 막시모바(2021), 크리스티코바(2021a)에 따른다. 덧붙여 2021년의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의한 통계치의 공표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늦어지고 있다. 경종작물 수확량이 게재되는 동청 웹사이트의 ‘전체 경영체 유형별 농작물 총 수확량’ (Валовой сбор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культур по категориям хозяйств в хозяйствах всех категорий) 표에는 예년부터 1월에 전년의 잠정치, 4월에 마찬가지로 확정치가 게재되지만, 2022년 5월 상순 시점에서도 아직 2020년치만 게재되어 있었다. 한편, ‘부처간 정보통계시스템’ (EMISS)에는 동 시점에서 이미 2021년 확정치가 게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를 사용하였지만, 해바라기 종자 수확량의 건조 조정 후의 값 등 일부 미게재된 수치가 있다.(원저자 주)

2021년 러시아 곡물 총 수확량은 1억 2,140만 톤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9.0%, 2016-2020년 평균(이하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여 -2.6%의 수입 감소였다¹⁵⁾.

밀에 대해서는 2021년 수확량은 7,606만 톤으로 전년대비 -11.5%, 최근 5년 평균 비로 -2.7%의 감소였다. 2021년은 중앙 러시아 지역의 겨울 밀 윈터킬(winter-kill, 겨울철의 혹한이나 봄 추위가 돌아오는 데 따른 고사)이나 불가 연안 지역 등에서의 여름 가뭄에 의해 밀 감수가 발생하였다. 한편, 북캅카스 지역에서의 파종면적 증가와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풍작으로 인한 밀 증수가 이를 보전해 주었다. 그 결과, 연방 전체에서는 감수가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그 밖의 주요 곡물에서는 보리 수확량이 1,8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1%, 최근 5년 평균 대비 -6.7%의 수입이 되었다. 한편, 옥수수 수확량은 1,524만 톤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11.7% 증가하였다.

공예작물에서는 유량작물의 2021년 수확량(건조조정 후의 값)은 사상 최고인 2,485만 톤에 달하였다. 대두 476만 톤, 유채종자 279만 톤은 모두 사상 최고치이다. 유량작물 중 최대 품목인 해바라기 종자에 대해서도 건조조정 전 수치로 1,654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유량작물 수확량 증가의 주된 요인은 파종면적의 확대였다. 2021년의 파종면적 증가에 대해서는 겨울 밀 윈터킬이 발생한 지역에서 봄에 옥수수 외에 해바라기나 유채종자 재파종이 이루어진 것이 큰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¹⁶⁾. 또한 사탕무에서는 파종면적이 전년보다 8.4% 증가하였으며¹⁷⁾, 중앙, 남부, 북부 캅카스 연방 관구에서 적절한 날씨를 보여¹⁸⁾, 수확량은 전년을 웃도는 4,120만 톤(전년대비 4,120만 톤)이 되었다.

이밖에 감자는 수확량 1,8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7%, 최근 5년 평균 대비 -17.1% 감소, 채소는 수확량 1,34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8%, 최근 5년 평균 대비 -1.5% 감소였다.

2) 축산업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량 추이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은 1990년대의 극적인 축소를 거쳐 200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회복 과정에 들

15) 러시아의 통계치에는 2014년 이후에는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연방 구성 주체로는 크림 공화국 및 세바스토폴리스) 값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러시아 연방 전체 수치를 나타낼 때는 특별히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3년 이전에는 크림의 값을 포함하지 않고, 2014년 이후에는 크림의 값을 포함한 수치를 게재하고 있다.(원저자 주)

16) 막시모바(2021), 크리스티코바(2021b). 후자는 “올해 해바라기 파종면적 증가는 중앙(연방관구)이나 볼고그라드 주에서 고사된 겨울작물의 대체 파종에 의한 것으로, 추가 면적 증가는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릴코 농업상황연구소(IKAR) 대표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원저자 주)

17) EMISS에 의하면, 러시아의 사탕무 파종면적은 2020년의 92.6만ha에 대해 2021년은 100.4만ha.(원저자 주)

18) 막시모바(2021).(원저자 주)

어갔다. 회복·확대가 진행된 것은 주로 양계·양돈이었다. 2014년 루블화 약세와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시작되자, 러시아의 식육·육제품이나 우유·유제품 수입은 한층 감소하였지만, 이후에도 생산량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돼지고기와 가금류였다.

2021년의 생산량(생체중)은 가금육 672만 톤, 돼지고기 550만 톤이며, 2014년부터의 증가량(율)은 가금육 113만 톤(20.3%) 증가, 돼지고기 168만 톤(44.2%)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금육, 돼지고기 모두 생산량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가금육 생산량 증가세는 2017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었다. 2021년 생산량은 2017년 대비 1.5% 증가에 그친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쳤다. 원래 성장이 완만했던 계란 생산량은 2017년 448억 개였는데 비해 2021년 449억 개로 2017년 이후 거의 증가세가 멈추었다.

양계·양돈부문의 생산량 성장 둔화의 배경으로서는 국내 수요 포화와 함께 질병(양계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양돈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행이 지적된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가금류 마릿수와의 관계에서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한다.

표 4 러시아의 축산물 생산량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식육 계(만 톤)	1,564	934	703	773	1,055	1,340	1,390	1,451	1,488	1,516	1,561	1,568
쇠고기	733	478	333	320	303	282	278	274	280	283	284	287
돼지고기	468	257	215	209	310	395	433	455	480	503	547	550
양·산양고기	88	59	31	34	41	45	47	48	48	47	46	46
가금육	255	126	112	197	388	604	619	662	667	671	672	672
우유(만 톤)	5,572	3,924	3,226	3,107	3,151	2,989	2,979	3,018	3,061	3,136	3,223	3,229
계란(억 개)	475	338	341	371	408	425	435	448	449	449	449	449

주: 식육 생산량은 생체중. ‘식육 계’에는 표 중 열기한 주요 가축 이외의 고기도 포함.

자료: 1990-2020년은 EMISS, 2021년은 러시아연방 통계청(2022)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소 부문(낙농·쇠고기 생산)은 1990년대 축소 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완만하지만 생산 회복이 계속되고 있다. 우유 생산량은 2016년 2,979만 톤을 저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서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29만 톤(2016년 대비 8.4% 증가)을 보이고 있다. 쇠고기 생산량도 2017년 274만 톤을 저점으로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287만 톤(대 2017년 4.8% 증가)이 되고 있다(<표 4>에 관해 본문 중 생산량의 증감 수치는 반올림 관계로 동표에서 계산하는 값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표 5>에 대해서도 동일).

<표 5>는 각 연말 현재 가축·가금의 마릿수 추이이다. 2021년 말의 수치는 소 1,766만 마리(이 중 암소 775만 마리), 돼지 2,624만 마리, 양·산양 2,094만 마리, 가금 53,689만 마리였다.

표 5 러시아의 가축·가금 마릿수

(각년 말 현재, 단위: 만 마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소	5,704	3,970	3,752	3,163	1,979	1,862	1,835	1,829	1,815	1,813	1,803	1,766
그 중 암소	2,055	1,744	1,274	952	871	812	797	795	794	796	790	775
돼지	3,831	2,263	1,582	1,381	1,725	2,141	2,192	2,308	2,373	2,561	2,585	2,624
양·산양	5,819	2,803	1,496	1,858	2,173	2,461	2,472	2,439	2,313	2,262	2,166	2,094
가금	65,981	42,260	34,067	35,747	44,971	54,391	54,391	55,017	55,145	54,469	51,978	53,689

자료: 1990-2020년은 러시아연방 통계청 웹사이트, 2021년은 러시아연방 통계청(2022)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돼지 마릿수는 2004년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1년 2,624만 마리는 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시작된 2014년과 비교하여 34.9% 증가한 것이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돼지 마릿수 증가(1.5%)에 비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0.4%)가 적다. 러시아의 양돈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말 이후 대량의 돼지를 처분하는 한편, 이에 따른 마릿수 감소를 신규 프로젝트 가동에 의한 마릿수 증가가 메웠다고 지적되고 있다(베라야, 2021). 2021년 돼지 마릿수와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율의 차질은 같은 해 러시아의 양돈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신규로 증가한 돼지가 아직 출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금류 마릿수는 2017년을 정점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전년대비 4.6% 감소로 상당히 크게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가금류 마릿수는 전년 대비 3.3% 증가로 상당히 회복되었지만, 가금육이나 계란 생산량은 전년과 같으며, 이도 양돈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과정에 있다고 생각된다.

소의 마릿수는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총 마리수가 2.1% 감소, 암소 마리수가 1.9% 감소로 다소 감소폭이 컸다. 최근 애그로홀딩(축산 농가 또는 축산 회사)에 의한 낙농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완만하지만, 우유나 쇠고기 생산이 회복되어 오고 있다.

2021년 쇠고기 생산이 전년 대비 1.0% 증가, 우유 생산이 동 0.2% 증가함에 따라 같은 해에도 같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베라야(2021)는

2021년 쇠고기 생산 증가 배경에는 다수의 경영체가 낙농에서 철수한 적이 있다는 업계 단체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021년의 소 마릿수 감소가 다소 큰 것과 관련 하여 향후 낙농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2) 농수산물 무역 동향

여기에서는 농수산물(HS1류~24류)의 품목별 무역 동향에 대해 고찰한 후, 최대 수출 품목인 곡물 수출 동향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농수산물 품목별 무역 동향

러시아의 2021년 농수산물(HS 1류~24류) 무역은 19.7억 달러 수출초과로, 처음으로 농수산물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표 6>에서 2021년 러시아의 농수산물 무역에서 발생한 변화를 전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에 러시아의 농수산물 순수출국으로의 전환을 가져온 것은 ① 순수출 품목에 있어서 순수출액 증가와 ② 순수입 품목에서의 순수입액 감소이다. 이에 더하여 ③ 이러한 효과가 순수입 품목에 있어서의 순수입액 증가 등을 웃돈 결과이다.

각각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⁹⁾.

①에 해당하여 2021년에 순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순수출 품목은 HS 10류인 곡물, HS 15류인 동식물성 유지, HS 3류인 생선 등이었다.

HS 10류인 곡물은 2021년의 순수출액이 111.0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액이 13.3억 달러이며, 모두 농수산물 24개 품목 중 최대였다. 2021년에는 곡물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배경은 2021년의 곡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1년 2월 이후 곡물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곡물 수출 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톤당 연평균 단가는 2020년 208달러, 2021년 266달러)는 점에서 순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HS 15류인 동식물성 유지는 2021년의 순수출액이 41.5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액은 12.8억 달러(수입액 증가 7.6억 달러에 비해 수출액의 증가가 20.4억 달러)였다.

품목별로 가장 수출액이 많은 것은 해바라기유(HS 1512)이며, 2021년에는 같은 해 9월 이후 해바라기유에 수출관세가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전년과 비교하여 수출량은 감소하였지만 수출단가가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톤당 연평균단가는 2020년 767달러, 2021년 1,282달러), 해바라기유의 2021년 수출액은 39.8억 달러(전년대비 11.7억 달러 증가)가 되었다.

HS 3류 생선류의 2021년 순수출액은 37.1억 달러(전년 대비 7.6억 달러 증가)였다. 세계 경제의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이 진행되어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

19) 이하 이 항의 수치는 모두 러시아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저자 계산.(원저자 주)

는 가운데,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액도 증가하였는데, 이를 크게 웃돌아 한국, 네덜란드,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의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②에 해당하여, 2021년에 순수입액(<표 6>에서는 음의 순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순수입 품목은 HS 2류인 식육이었다. 2021년 순수입액은 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억 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수출액 증가(2.8억 달러 증가)가 수입액 증가(0.6억 달러 증가)를 웃돈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쇠고기, 베트남으로의 돼지고기, 사우디아라비아로의 가금육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6 러시아의 농수산물(HS 01~24) 무역 동향(2020-21년)

(단위: 백만 달러)

HS	품목	수출			수입			총수출액		
		2020	2021	변화	2020	2021	변화	2020	2021	변화
1	살아있는 동물	57	52	- 4	215	197	- 18	- 158	- 144	13
2	고기(肉)	882	1,160	278	1,437	1,497	60	- 554	- 337	217
3	생선(魚) 등	4,640	5,850	1,210	1,684	2,137	453	2,955	3,713	758
4	낙농품 등	304	381	78	2,900	2,948	48	- 2,597	- 2,567	30
5	기타 동물산품	97	119	22	81	81	- 0	15	38	23
6	살아있는 식물	4	5	1	525	793	268	- 521	- 787	- 266
7	채소	489	818	329	1,732	1,834	103	- 1,243	- 1,017	226
8	과일	137	154	16	5,645	5,790	145	- 5,507	- 5,636	- 129
9	커피, 차 등	192	231	39	1,185	1,354	169	- 993	- 1,123	- 130
10	곡물	10,101	11,370	1,269	329	269	- 60	9,772	11,101	1,329
11	곡분 등	359	474	116	113	158	45	246	317	71
12	유량종자 등	1,729	1,245	- 485	1,873	2,344	471	- 143	- 1,099	- 956
13	고무 등	10	11	1	217	250	33	- 206	- 239	- 33
14	기타 식물산품	18	16	- 2	11	17	6	7	- 1	- 8
15	동물성 유지	4,269	6,306	2,037	1,403	2,158	755	2,866	4,148	1,282
16	고기 등 조제품	232	305	74	538	631	93	- 306	- 326	- 19
17	당류	737	564	- 173	315	398	83	- 306	- 326	- 19
18	코코아	741	878	137	1,222	1,403	180	- 481	- 524	- 43
19	곡물조제품	755	927	171	852	955	102	- 97	- 27	69
20	채소 등 조제품	415	494	80	1,174	1,361	187	- 760	- 867	- 107
21	각종 조제식품	821	1,073	253	1,503	1,737	24	- 682	- 663	19
22	음료, 알콜 등	627	824	197	2,834	3,363	529	- 2,207	- 2,539	- 332
23	식품산업 잔류물 등	1,431	2,060	630	1,118	1,425	307	312	635	323
24	담배	540	586	47	841	841	- 0	- 301	- 204	47
계	계	29,585	35,905	6,320	29,746	33,940	4,194	- 161	1,965	2,126

자료: 러시아연방 관세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저자 작성. 데이터는 2022년 2월 13일 다운로드. 長友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ー’,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③에 해당하는 것은 HS 12류인 유량종자 등, HS 22류인 음료, 알코올 등, HS 6류인 살아있는 식물이다.

HS 12류인 유량종자 등의 순수입액 증가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이후 러시아가 적용하고 있는 수출관세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감소되는 한편, 남미의 파라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로부터의 대두 수입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HS 22류인 음료, 알코올 등, HS 6류인 살아있는 식물(특히 HS 0603의 절화 등)의 순수입액 증가에 대해서는, 러시아 경제의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 국민 소득의 개선을 반영한 수요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③에 의한 순수입액 증가를 고려하여도, ①에 의한 순수출액의 증가와 ②에 의한 순수입액 감소에는 미치지 못하여, 러시아는 2021년에 드디어 농수산물 순수출국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2) 곡물 수출 동향

러시아의 곡물 전체 및 주요 곡물별 수출 동향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2012/13년도에 가뭄 등에 의한 흉작 때문에 저수준이 되었으나, 2013/14년도 이후에는 호조가 계속되는 곡물 생산을 반영하여 곡물 수출도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7/18년도의 곡물 수확량과 수출량은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수출량은 5,319만 톤에 달하였다.

표 7 러시아의 곡물 수출(곡물 계 및 주요 곡물별 내역)

	2016/17년도		2017/18년도		2018/19년도	
	수량(만 톤)	구성비 (%)	수량(만 톤)	구성비 (%)	수량(만 톤)	구성비 (%)
곡물 계	3,593	100.0	5,319	100.0	4,349	100.0
그 중 밀	2,742	76.3	4,096	77.0	3,534	81.3
보리	295	8.2	589	11.1	469	10.8
옥수수	521	14.5	590	11.1	276	6.3
	2019/20년도		2020/21년도		2021/22년도(2021년 12월까지)	
	수량(만 톤)	구성비 (%)	수량(만 톤)	구성비 (%)	수량(만 톤)	구성비 (%)
곡물 계	4,275	100.0	4,905	100.0	2,553	100.0
그 중 밀	3,388	79.3	3,808	77.6	2,118	83.0
보리	451	10.5	625	12.7	276	10.8
옥수수	405	9.5	420	8.6	129	5.1

주: 기간은 농업연도(각년 7월~다음 해 6월). 2021/22년도 수치는 2020년 12월 말까지의 값.

자료: 러시아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저자 작성. 데이터는 2022년 2월 12일 다운로드. 長友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ー’,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2020/21년도 러시아의 곡물 총수출량은 4,905만 톤으로 2017/18년도에 이어 사상 두 번째였다. 2020/21년도에는 2020년의 곡물 수확량이 2017년에 이은 사상 제2위로 많았던 데다, 밀 등의 곡물의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추이함에 따라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21년 2월 이후에는 수출 과일과 국내 가격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관점에서 밀, 보리, 옥수수 및 호밀을 대상으로 함께 1,750만 톤의 수출 관세 할당 쿼터(quota)와 고율의 쿼터 외의 관세가 도입되었다. 또한 분기 중에 쿼터 내 관세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2021년 3월~5월에는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였지만, 연도를 통해 보면 사상 제2위의 큰 수출량이 되었다.

수출량의 내역을 보면, 밀은 3,808만 톤으로 사상 제2위, 보리는 625만 톤으로 사상 제1위를 차지하였으며, 옥수수 수출량도 420만 톤으로 전년도를 웃돌았다.

2021/22년도의 곡물 수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가변수출관세제도 하에서 이루어졌다. 2021년의 곡물 생산은 전년과 비교하여 감소된 데다가, 가변 수출 관세 제도의 대상이 된 밀, 보리 및 옥수수 중에서도 특히 밀과 보리로 수출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여 수출 관세액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수출량(전년도 동기 변화율)은 곡물 전체로는 2,553만 톤(18.3% 감소), 그 중 밀 2,118만 톤(18.0% 감소), 보리 276만 톤(28.4% 감소), 옥수수 129만 톤(4.8% 감소)이다.

세계의 밀 무역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지위를 <표 8>에 나타내었다. 미국 농무부(USDA)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7/18년도, 2018/19년도 및 2020/21년도에 밀 수출량 세계 제1위를 차지하였다. 2021/22년도에는 <표 8>의 작성 시점에서는 예측이지만,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수확량의 감소나 수출 관세 적용을 반영하여 3,300만 톤으로 감소하여 EU에 이은 세계 제2위로 전망되고 있다.

표 8 세계의 주요 밀 수출국

(단위: 만 톤)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세계 계	18,543	세계 계	17,620	세계 계	19,387	세계 계	20,248	세계 계	20,010
1위	러시아	4,145	러시아	3,586	EU	3,979	러시아	3,910	EU	3,400
2위	EU	2,490	미국	2,550	러시아	3,449	EU	2,974	러시아	3,300
3위	미국	2,466	EU	2,469	미국	2,637	미국	2,699	호주	2,750
4위	캐나다	2,200	캐나다	2,440	캐나다	2,414	캐나다	2,461	미국	2,136
5위	우크라이나	1,778	우크라이나	1,602	우크라이나	2,102	호주	2,385	우크라이나	1,960
참고							우크라이나(6위)	1,685		

주 1: 기간은 시장연도(각년 7월~다음 해 6월).

2: 러시아의 밀 수출량 수치는 러시아연방 세관청에 의한 <표 7>의 수치와는 조금 상이하다.

자료: USDA, PSD Online(2022년 4월 17일 액세스).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轉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USDA는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 도입·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양국의 곡물 수출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하여 2021/22년도의 밀 수출량 추계를 수시로 재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수치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²⁰⁾.

러시아의 밀 수출 지역별 동향은 <그림 4>와 같다. 러시아산 밀의 최대 수출 대상 지역은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다. 러시아의 밀 총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이 지역의 점유율은 2010/11년도 이후 총 수출량의 증가와 함께 해마다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0/21년도는 52.0%, 2021년 7월~12월까지의 기간에 45.9%였다.

이 지역 중에서 러시아로부터 특히 대량의 밀을 수입하고 있는 것은 이집트와 튀르키예(구 터키)이며, 2020/21년도 러시아의 수출량은 이집트 813만 톤, 튀르키예 699만 톤에 달하였다.

덧붙여 최근 러시아의 밀 수출과 관련한 통관 통계에서 ‘불명국’ (Неизвестная страна)으로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2019/20년도 83만 톤, 2020/21년도 209만 톤, 2021/22년도(2021년 7월~12월까지 반년 간)에는 457만 톤에 이른다.

통관통계나 보도에서는 여기에 이란으로의 수출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감안하면, 러시아의 밀 수출처로서의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점유율은 근년 다시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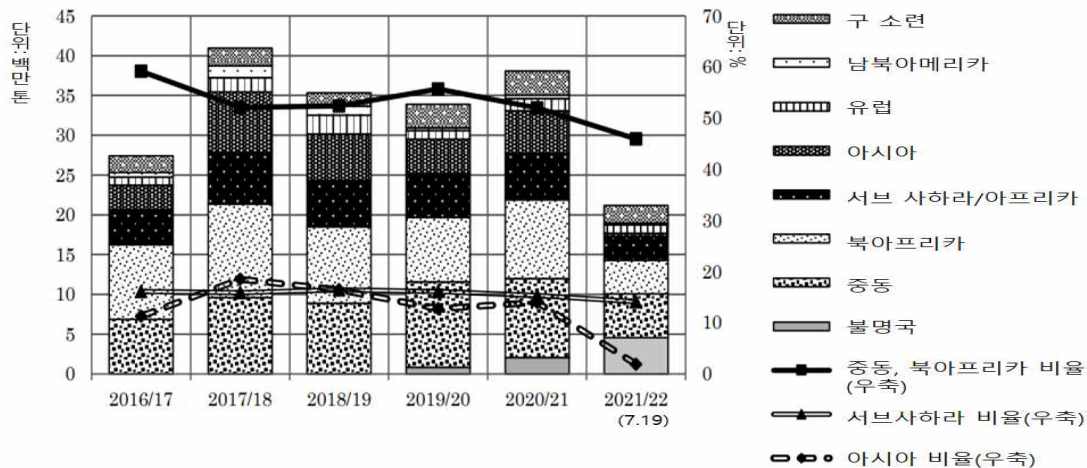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지역의 점유율은 2020/21년도 15.3%, 2021/22년도(2021년 7월~12월) 14.1%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점유율은 2020/21년도 14.0%에 비해 2021/22년도(2021년 7월~12월)는 1.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연도를

20) USDA WASDE는 2021/22년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량 추계를 순차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단위: 백만 톤). 2022년 1월 12일 시점: 러시아 35.0, 우크라이나 24.0, 2022년 3월 9일 시점: 러시아 32.0, 우크라이나 20.0, 2022년 4월 8일 시점: 러시아 33.0, 우크라이나 19.0.(원저자 주)

21) 러시아 밀의 통관 통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수출처로서 ‘불명국’ (Неизвестная страна)의 기재는 있었지만, 양적으로 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되고 있어 통계 정리 과정의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2019/20년도 이후의 그것은 대량으로 상당기간 게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 다르다. 러시아연방 통계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22년 2월 12일 시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던 2018년 1월 이후의 월별 밀(HS 1001) 수출 데이터를 보면, 러시아에서 이란에 대해서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평균 약 8,000톤의 밀 수출이 매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2019년 10월 이후 최신 2021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이란으로의 수출 데이터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와 시기를 같이 하여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20년 6월을 제외한 매월 ‘불명국’으로의 수출 데이터가 게재되고 있으며, 매월 평균 수출량은 28.8만 톤에 이르고 있다. 그 모두가 이란을 위한 것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팩스(2021)에는 ‘이란이 러시아 곡물의 구입자 제1위에’라는 제목으로 2021년 7월부터 9월의 3개월간 러시아에서 이란에 369만 7천 톤의 곡물(그 중 밀 309만 1천 톤)이 수출된 것이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연방 통계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는 최근 3개월간 러시아로부터 이란에 밀이 수출되었다는 데이터는 없으며, 한편으로 같은 시기에 ‘불명국’에 285만 5천 톤의 밀이 수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인터팩스가 보도하는 이란에 대한 수출량과 가까운 수치가 되고 있다. 만일 ‘불명국’이 모두 이란이라고 한다면 2021/22년도(2021년 7월~12월)에 있어서 러시아의 밀 총수출량에서 차지하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위한 점유율은 67.5%에 달한다. 러시아가 이란과의 밀 거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의해 2019년 5월 이후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금지되는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이란으로의 밀 수출이 원유와의 바터 거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코스트레이프, 2019).(원저자 주)

통해 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밀 수출처의 중동·북아프리카 회귀가 진행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림 4 러시아의 지역별 밀 수출량 추이



자료: 러시아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원저자 작성. 데이터는 2022년 2월 12일 다운로드.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4. 러시아의 농업정책 2021년~2022년(3월까지) 움직임

2021년에는 러시아 경제의 코로나19 영향으로부터 회복이 진행되는 한편, 식품 가격 급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곡물이나 유량 종자의 수출 규제가 계속되어 더욱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 수출규제 조치를 중심으로 2021년~2022년 3월까지 러시아 농업정책의 주요 움직임을 정리해 보았다.

(1) 곡물 수출 규제

곡물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글²²⁾에서 설명한 곡물의 수출 관세가 계속 적용되어 더욱 그 강화가 도모되었다. 그 경위와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 長友 謙治, 『[世界の農業・農政]ロシアの穀物輸出規制』, Primaff Review No. 102,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7(https://www.maff.go.jp/primaff/kanko/review/attach/pdf/210730_pr102_04.pdf) 또는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개요)』,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그리고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코로나19 사태와 식량안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長友 謙治, 『[第5章] ロシアーコロナ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https://www.maff.go.jp/primaff/kanko/project/attach/pdf/210331_R02cr05_05.pdf)을 참고하기 바란다.(역자 주)

1) 곡물 수출 관세: 항구적인 가변 수출 관세 제도로의 이행

밀, 호밀, 보리 및 옥수수(이하 ‘4종 곡물’ 이라 총칭)를 대상으로 유라시아 경제 연합(약칭 EAEU. 가맹국은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역외 수출에 대해 2021년 2월 15일부터 합계 1,750만 톤의 수출 수량 쿼터(이하, ‘수출 쿼터’ 또는 ‘쿼터’)를 적용하는 동시에 쿼터 내·쿼터 외 2단계의 수출 관세가 부과되게 되었으며, 이후 수출 관세는 가변수출관세로 이행하였다.

<그림 5>를 통해 밀을 예로 들어 제도의 변천을 나타내었다. 우선 4종 곡물 총 1,750만 톤의 수출량은 2021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었다. 수출관세 중 쿼터 내 관세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25유로/톤,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50유로/톤의 정액관세가 적용되며, 6월 2일부터는 가변수출관세로 이행하였다.

쿼터 외 관세에 대해서는,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관되게 50%(최저 100유로/톤)였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수출 수량 쿼터가 없어지고 가변수출관세만 적용되었다. 2022년 1월 31일부터는 후술하는 3단계의 가변수출관세 산출방식 적용이 시작되었다.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수출 수량 쿼터가 없고, 3단계의 가변수출관세가 단독으로 적용되었다.

그림 5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밀의 경우), 2021년 2월 15일~2022년 2월 14일

시기		2021.2.15~2.28	3.1~6.1	6.2~6.30	7.1~2022.2.14
제도		수출관세 할당제도			가변수출관세제도
세 율 (액)	수량쿼터	1,750만 톤(대상 곡물 합계)			
	쿼터 내	25유로/톤	50유로/톤	(지표수출가격 - 200달러/톤) × 70% ^{주)}	
	쿼터 외	50% (최저 100유로/톤)			

주: 그림에서는 생략하였지만, 2022년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3단계의 가변수출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자료: 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러시아연방 정령으로부터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一’, 農林水産政策研究所「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2) 가변 수출 관세와 수출 수량 쿼터: 당초 정해진 제도

다음으로 가변 수출 관세의 구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입 당초인 2021년 2월 6일자 러시아연방 정령(이하 ‘정령’) 제117호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단계에서는 연도 전반(7월 1일~12월 31일)에는 수출 수량 쿼터를 설정하지 않고 가변수출관세만을 적용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한편, 연도 후반(다음해 1월 1일~6월 30일)에 대해서는 수출 수량 쿼터를 두어 관세를 쿼터 내(가변수출관세)·쿼터 외의 2단계로 하거나, 쿼터를 두지 않고 가변수출관세만을 적용하거나, 두 가지 모두를 채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

① 대상 품목: 밀, 호밀, 보리 및 옥수수 4품목²³⁾.

② 적용 기간: 2021년 6월 2일부터(항구적인 적용을 상정).

③ 관세액(율) 및 수출 수량 쿼터: 러시아 농업 연도(매년 7월~다음해 6월)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틀을 설정.

a. 연도 전반(7월 1일~12월 31일): 수출 수량 쿼터 설정은 상정되지 않았다. 가변수출관세(세액은 아래 ④ 참조)를 적용한다.

b. 연도 후반(다음해 1월 1일~6월 30일): 수출 수량 쿼터를 설정하는 경우는 쿼터 내 수출에는 가변수출관세, 쿼터 외 수출에는 ‘50%, 단, 최저 100유로/톤’의 수출관세가 적용된다. 수출 수량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가변수출관세가 적용된다.

④ 가변수출관세의 세액

가변수출관세의 톤당 수출관세액은 밀, 보리 및 옥수수를 대상으로 연방 농업부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매주 산출·공표한다. 이 제도 출범 이후(2021년 6월 2일부터 2022년 3월 29일까지) 가변수출관세의 세액 추이는 <그림 6>과 같다²⁴⁾.

$$\text{수출관세액[톤당]} = (\text{지표수출가격} - \text{기준수출가격}) \times 0.7$$

a. 지표 수출 가격: 모스크바 증권거래소·전국 상품거래소의 달러 표시 노보로시스 크항 인도 FOB 가격 시세에 근거하여 연방농업부가 매주 산출·공표하는 값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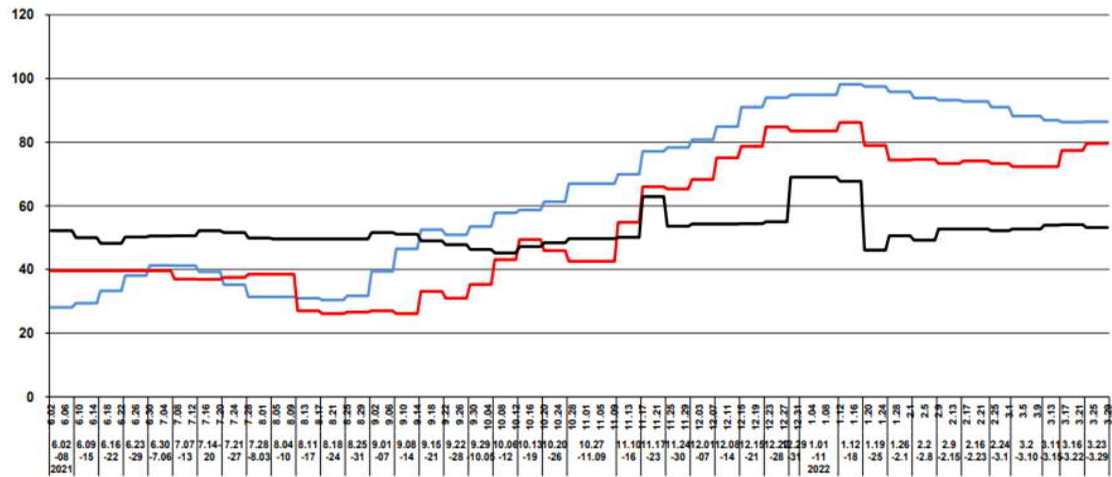
b. 기준 수출가격: 밀은 200달러/톤, 보리 옥수수는 185달러/톤.

23) 대상 품목은 엄밀하게는 밀·메슬린(HS 1001 19000, 100 1999000), 호밀(HS 1002 90000) 보리(HS 1003 90000) 및 옥수수(HS 1005 90000)이다. 이 중 호밀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수출 수량 쿼터가 설정된 경우의 쿼터 외 수출관세(50%, 단 최저 100유로/톤)뿐이며, 가변수출관세는 항상 제로이다. 또, 종자용 수출의 경우는 어느 곡물도 수출 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원저자 주)

24) 곡물의 가변 수출 관세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의 국제 가격·수출 가격 급등을 반영하고, 3월 말 이후 밀과 옥수수에서 급상승하였으며, 4월 20일~26일에 적용되는 세액(톤당)은 밀 110.7달러, 보리 76.0달러, 옥수수 66.1달러이다.(원저자 주)

25) ‘지표 수출 가격’은, 원어로는 ‘지표 가격’(индикативная цена)이지만, 내용의 이해를 돕는 관점에서 원저자가 번역에 있어서 ‘수출’을 보완하였다.(원저자 주)

그림 6 러시아 곡물 가변수출관세액 추이



주: 파란색: 밀, 빨간색: 보리, 검은색: 옥수수. 단위는 US 달러/톤.

자료: 러시아연방 농업부 웹사이트 「수출관세율」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ー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프로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3) 가변수출관세와 수출 수량 쿼터: 2021년 말 개정

상기 (1)의 당초 가변수출관세 제도 하에서 2021년 7월 1일부터는 수출 수량 쿼터가 없어지고 가변수출관세만이 적용되는 상태가 되었다. 예년 같으면 새로운 농업 연도가 시작되면 신곡의 공급이 증가하여 곡물가격은 내려갈 터이다. 하지만, 2021년에는 밀을 비롯하여 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이 계속되어 러시아의 곡물수출가격도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그림 6>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밀이나 보리에서는 2022년 1월 중순까지 가변수출관세액 상승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림 9> 참조), 국내 밀제품의 가격은 상승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가변수출관세와 수출 수량 쿼터의 구조 재검토가 진행되어 2021년 12월 31일자 정령 제2595호에 의해 그 내용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① 및 ②와 같다.

① 연도 후반 수출 수량 쿼터 도입 항구화

당초의 정령에서는 선택사항이 남아 있던 연도 후반의 수출 수량 쿼터 도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밀, 보리, 옥수수 및 호밀에 대해서 매년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 수량 쿼터를 도입한다.
- 2021/22년도의 수출 수량 쿼터는 밀에 대해서는 800만 톤, 보리, 옥수수 및 호밀에 대해서는 합계 300만 톤으로 한다.
- 차년도(2023년 2월 15일) 이후의 매년 수출 수량 쿼터 수치에 대해서는 연방경제발전부와 연방농업부가 합의한 안을 전년 12월 10일까지 연방정부에 제출한다.

② 가변수출관세 세액 산출방식 재검토

곡물 수출가격이 상승할수록 강하게 수출을 억제하는 구조로 만들 목적으로 3단계의 기준수출가격을 설정하고, 지표수출가격이 각 단계의 기준수출가격을 웃돌 때마다 수출 관세액 산출에 이용되는 계수가 상승하는 구조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곡물수출관세 구조와 수출관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새로운 곡물 수출관세의 메카니즘과 수출관세액 계산 방법



[수출관세액 계산방법] 밀의 예(금액은 USD/톤) ↓

↓

케이스 3 $400 \leq IP$

수출관세액 = ③ + ② + ① ↓

$$\textcircled{3} = (IP - BP3) \times 0.9 \downarrow$$

$$\textcircled{2} = (BP3 - BP2) \times 0.8 = (400 - 375) \times 0.8 = 20 \downarrow$$

$$\textcircled{1} = (BP2 - BP1) \times 0.7 = 122 \downarrow$$

↓

케이스 2 $375 \leq IP \leq 400$

수출관세액 = ② + ① ↓

$$\textcircled{2} = (IP - BP2) \times 0.8 \downarrow$$

$$\textcircled{1} = (BP2 - BP1) \times 0.7 = (375 - 200) \times 0.7 = 122 \downarrow$$

↓

케이스 1 $200 \leq IP \leq 375$

수출관세액 = ① ↓

$$\textcircled{1} = (IP - BP1) \times 0.7 \downarrow$$

※ 2021년 6월 2일부터 적용중인 가변수출관세 산식과 같음. ↓

↓

케이스 0 $IP \leq 200$

수출관세액 = 0 ↓

자료: 2021년 12월 31일부 정령 제2595호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개정 후 2022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적용되는 제도는 <그림 8>과 같다.

2022년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수출 수량 쿼터가 설정되며, 쿼터 내 수출에는 3단계의 가변수출관세, 쿼터 외 수출에는 종래와 같은 50%(최저 100유로/톤)의 관세가 적용되며, 수출 수량 쿼터가 설정되지 않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는 3단계의 가변수출관세가 단독으로 적용되게 된다.

그림 8 러시아 곡물 수출규제(밀의 경우), 2022년 2월 15일~2023년 2월 14일

시기		2022.2.15~6.30	7.1~2023.2.14
제도		수출관세 할당제도	가변수출관세제도
세 율 (액)	수량쿼터	밀 800만 톤 ^{주)}	
	쿼터 내	3단계 가변 수출관세	
	쿼터 외	50% (최저 100유로/톤)	

주: 밀 800만 톤 외에 라이맥, 보리 및 옥수수 합계로 300만 톤의 쿼터가 설정됨.

자료: 각 규제의 근거가 되는 러시아연방 정령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2) 곡물 댐퍼의 생산자 조성

곡물의 변동수출관세는 수출업자가 지불하지만, 수출업자는 그것을 곡물 생산자에게 전가한다고 상정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생산자가 입는 감수를 보전하기 위해 곡물수출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경종농업 생산자에 대한 조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곡물수출관세 부과에 의해서 곡물 수출을 억제하여 국내가격 급등을 막음과 동시에, 수출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곡물생산 진흥을 도모하는 쿼터 전체를 ‘곡물 댐퍼(damper, 충격흡수장치²⁶⁾)’ (зерновой демпфер)라고 부른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현재 곡물수출관세에 의한 세수는 919억 18백만 루블이며, 여기서 자연재해와 관련된 손실보전, 저리융자, 축산업자의 사료 구입 조성, 로스 어그로리싱(국영 농업리스회사)의 자산 적중에 대해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출 금액은 저리융자(이자 조성인 것으로 생각됨)가 95억 74백만 루블, 축산업자의 사료구입 조성이 105억 루블, 로스 어글리싱 자산 적중이 85억 루블이라는 것이다²⁷⁾.

26) 곡물 댐퍼 등 2021년 8월 시점의 러시아 수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허 덕, 김태런, ‘러시아의 코로나19 사태와 식량안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역자 주)

27) 타스통신(2022)이 하원 농업문제위원회의 레베데프 메나테프 연방농업부 차관의 설명으로 보도한

(3) 유량종자 등 수출 규제

1) 유량종자 수출규제

러시아는 유량종자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이하 ‘EAEU’) 역내 가공 촉진과 착유 원료 확보를 목적으로, 종전부터 해바라기 종자와 유채종자의 EAEU 역외수출에 수출세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2020년 12월 10일자 정령 2065호에 따라 2021년 1월 9일~6월 30일까지 수출세를 종전까지 6.5%(해바라기 종자는 최저 9.75유로/톤, 유채 종자는 최저 11.4유로/톤)에서 30%(최저 165유로/톤) 인상하기로 하였다.

대두에 대해서는 종래 수출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일자 정령 제2397호에 의해 2021년 2월 1일~6월 30일까지의 기간 30%(최저 165유로/톤)의 수출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주요한 유량 작물은 모두 수출 관세 대상이 되었다.

2021년 7월 1일 이후의 취급에 대해서는 우선 유채종자 및 해바라기 종자 수출 관세에 대해 2021년 4월 6일자 정령 547호에 의해 두 품목 모두 적용기간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유채종자에 대해서는 30%(최저 165유로/톤)의 수출 관세율을 유지한다. 한편, 해바라기 종자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율을 50%(최저 320달러/톤)로 인상하였다. 러시아 식용유의 주요 원료이며, 국내 소비자와 착유업자에게 중요성이 높은 해바라기 종자의 국내 수급 안정을 보다 중시한 조치로 생각된다.

대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7일자 정령 803호에 의해 수출관세 조치를 마찬가지로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한편, 수출 관세율을 20%(최저 100달러/톤)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대두에 대해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주로 중국으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일정한 배려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경위를 정리한 것이 <표 9>이다.

표 9 러시아의 유량종자 수출관세(2021년 이후)

품목	품목 코드 ^{주)}	조치 도입 전 수출관세율	제1의 조치		제2의 조치	
			수출관세율	적용기간	수출관세율	적용기간
유채종자	1205 10 900 0	6.5% (최저 11.4 유로/톤)	30% (최저 165 유로/톤)	2021.1.9. ~ 6.30	30% (최저 165유로/톤)	2021.7.1. ~ 2022.8.31
해바라기종자	1206 00 990 0	6.5% (최저 9.75 유로/톤)			50% (최저 320달러/톤)	
대두	1201 90 000 0	무세	30% (최저 165 유로/톤)	2021.2.1. ~ 6.30	20% (최저 100달러/톤)	2021.7.1. ~ 2022.8.31

주: 품목 코드는 HS 코드는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경제활동 품목 분류 코드에 의함.

자료: 관계 정령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내용.(원저자 주)

2) 해바라기유 수출규제

해바라기유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6일자 정령 546호에 근거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밀 등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가변수출관세가 도입되었다.

① 대상품목 : 해바라기유²⁸⁾

② 적용기간 : 2021년 9월 1일~2022년 8월 31일

③ 가변 수출 관세의 세액

가변수출관세의 톤당 수출 관세액은 연방농업부가 아래의 식에 의해 매월 산출·공표한다. 이 식에서 산출한 값이 부(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수출 관세액은 제로이다.

$$\text{수출관세액[톤당]} = (\text{지표수출가격} - \text{기준수출가격}) \times 0.7$$

- a. 지표 수출 가격: Refinitiv SA²⁹⁾가 공표하는 ‘Sunflower Oil NWE Ex-Tank 6 Ports Position 1’ (SUNF-EXTANK-P1)에 근거하여 연방농업부가 매월 산출·공표하는 값(달러/톤). 산출은 관세액 공표의 전월 1개월간 매일의 SUNF-EXTANK-P1의 값의 산술 평균치로부터 50달러/톤을 공제하여 실시한다.
- b. 기준 수출가격 : 1,000달러/톤
- c. 수출관세액 및 지표수출가격은 매월 15일까지 연방농업부 웹사이트에서 공표한다. 수출관세액의 적용 기간은 공표 월 다음 달 1일부터 다음의 수출 관세액 적용 개시까지이다. 이러한 수치의 추이는 <표 10>과 같다.

표 10 해바라기유의 가변수출관세액 등 추이

(단위: 달러/톤)

적용일	지표수출가격	수출관세액
2021년 9월	1,242.8	169.9
2021년 10월	1,324.7	227.2
2021년 11월	1,277.9	194.5
2021년 12월	1,395.4	276.7
2022년 1월	1,401.2	280.8
2022년 2월	1,359.2	251.4
2022년 3월	1,371.7	260.1

자료: 러시아연방 농업부 웹사이트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28) 대상 품목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HS 1512 11 910 1(해바라기씨유, 원료용, 식품 제조용으로 용량 10kg 이하의 일차 용기에 든 것), HS 1512 11 910 9(동 10kg을 넘는 용량의 일차 용기에 든 것), HS 1512 19 900 2(해바라기씨유 및 그만큼 다른 것, 원료용 이외, 용량 10kg 이하의 일차 용기에 든 것), HS 1512 19 900 9(동 10kg을 넘는 용량의 일차 용기에 든 것).(원저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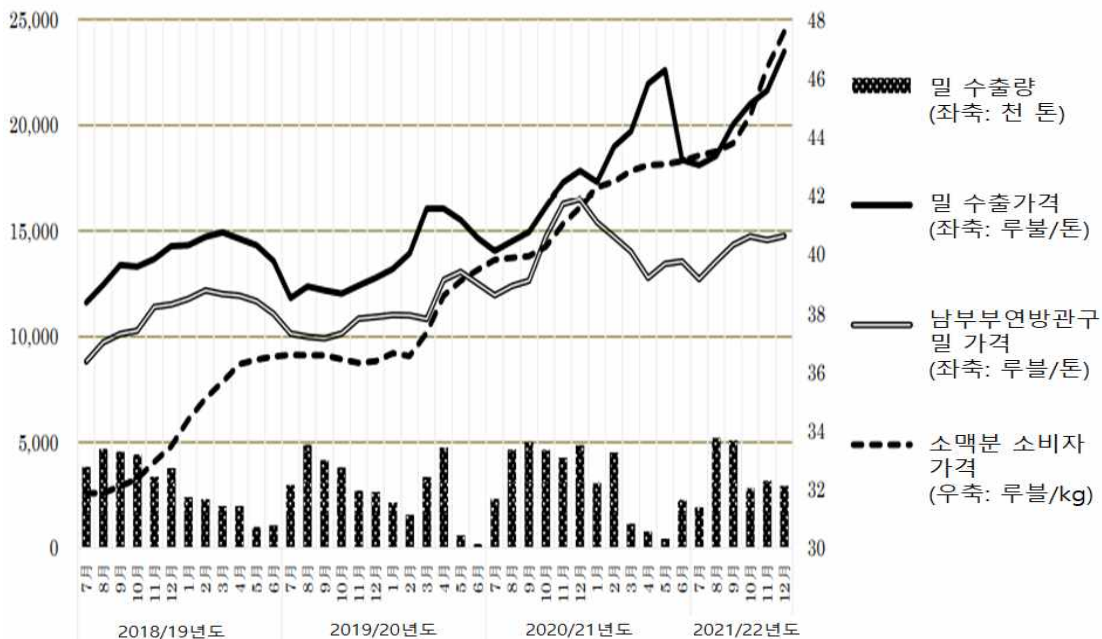
29) 이 회사 웹 사이트[<https://www.refinitiv.com/ja/about-us>]에 의하면, ‘Refinitiv(리피니티브)는 LSEG(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의 그룹 기업으로서, 금융시장의 데이터와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는 세계 유수의 프로바이더(중략) 190개국에서 4만여개 기업 및 기관, 40만을 넘는 이용자를 옹(擁)’ 이라 한다.(원저자 주)

(3) 수출 규제와 국내 가격 동향

수출 규제는 러시아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억제에 효과가 있었는지, 밀을 예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러시아 밀 수출량 및 밀 수출가격, 국내 생산자 가격(남부연방관구의 4급 밀 가격) 및 밀가루 소비자가격에 대해 2018/19년도 이후의 추이를 <그림 9>에 정리하였다³⁰⁾.

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 7월 이후 밀 수출가격과 남부연방관구 밀 가격과는 대체로 비슷한 차이로 추이해 왔다. 그러나, 2021년 2월 이후 양자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9 러시아 밀 수출량과 가격 추이



자료: 러시아연방관세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 연방농업부, 「농업시장 모니터링 및 EMISS에서 원저자 작성.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9号, 2022.3에서 재인용.

30) 밀의 월별 수출 물량은 러시아연방 세관통관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로드한 HS 1001 ‘밀 및 메슬린’의 수치이며, 밀의 월별 수출 가격은 원저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수출 금액(US달러 표시)을 수출 물량으로 나누어 단가를 제출하고, 이를 러시아 중앙은행의 환율(일별 환율에서 원저자가 월별 평균치를 산출)에서 루블화로 환산한 값이다. 밀의 생산자 가격에 대해서는 EMISS에 농업조직에 따른 판매가격에 매달 통계치(러시아연방의 평균치)가 게재되어 있지만, 2021년 7월 이후 갱신이 밀리고 있으므로, 이를 대신해서, 연방농업성 웹사이트의 ‘농산시장 모니터링’(Мониторинг рынков АПК) 페이지에서 대체로 매주 갱신되고 있는 ‘시장상황’(Обзор рынков) 중 ‘곡물시장에 대해서’(О ситуации на рынке зерна)에서 남부 연방관구의 가격을 선택하여, 거기서 원저자 계산으로 월별 평균치를 구하였다. 남부 연방관구는 러시아의 수출용 밀의 주요 산지이며, 노보로시스크 항을 비롯한 러시아의 주요 곡물 수출항이 집중하는 지역이다. 또, 4급 밀은 러시아의 수출 소맥의 중심이 되는 등급이므로, 남부 연방관구의 4급 밀 가격은 러시아의 밀 산지 가격 가운데 가장 수출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된다. 밀가루의 소비자 가격은 EMISS에 의한다.(원저자 주)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달부터 적용이 시작된 곡물수출관세이다. 이 그림의 수출 가격은 통관통계로부터 산출한 수출 단가이며, FOB 가격이므로 수출 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21년 2월 이후 상승하는 수출 가격에 대하여 생산자 가격인 남부연방 관구 밀 가격이 저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출 관세를 지불하는 수출업자가 이것을 곡물 생산자에게 전가하여 밀 매입 가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곡물 덩퍼는 곡물 수출관세를 수출업자로부터 곡물 생산자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상정하여, 곡물수출관세를 재원으로 한 보조금을 곡물 생산자에게 교부하는 구조이다. 즉, 곡물수출관세를 수출업자로부터 곡물 생산자로 전가하는 것은 상정한 바와 같이 실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밀가루 소비자 가격은 상승을 계속하여, 특히 2021년 9월 이후 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곡물수출관세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추가 수출 규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유량종자의 주요 수출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자 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이들 상품의 국제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국내 수급·가격 안정의 관점에서 이하와 같이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강구하였다.

① 곡물의 유라시아 경제연합국가 수출 일시적 금지조치 도입 및 수정

밀, 보리, 호밀 및 옥수수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15일~6월 30일 사이 수출관세 할당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 대상이 되지 않았던 EAEU 가맹국을 위한 수출을 벨라루스 수출용을 제외하고 3월 15일~6월 30일 사이 금지하기로 하였다.

당초 EAEU 가맹국을 수출관세할당제도의 대상 외로 한 결과, 일부 EAEU 가맹국이 제3국으로의 수출의 허점이 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를 저지하는 것이 조치의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인터팩스, 2022a), EAEU 역외용 수량 쿼터 내의 수출은 종래대로 허가제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2022년 3월 14일자 정령 제362호).

덧붙여, EAEU 가맹국 전용의 수출금지 조치는 그 후 완화되어 대상 곡물 중 종자용인 것에 대해서는 동년 4월 1일 이후, 허가제 하에서 EAEU 제국용 수출이 인정되고 있다(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28호).

② 유량종자 등 수출규제 강화

해바라기 종자 및 유채종자에 대해 2022년 4월 1일~8월 31일 사이 EAEU 역외 수출이 금지되고(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29호), 아마 종자에는 같은 해 5월 1일~8월 31일 사이 EAEU 역외 수출에 20%(최저 100달러/톤)의 수출관세가 부과되게 되었다(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31호).

또, 해바라기유박에는 같은 해 4월 15일~8월 31일 사이 EAEU 역외 수출에 70만 톤의 수출 수량 제한(쿼터 외 수출은 원칙 불가)이 적용되고(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48호), 같은 해 5월 1일~8월 31일 사이 월별로 세액을 정하는 가변수출관세가 적용되게 되었다(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32호).

한편, 대두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자동차, 철도, 하천, 해상교통에 의한 수출 포인트를 극동연방관구 합계 26개 지점으로 한정함(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30호)과 동시에, 대두유박에 대해 수출 포인트를 대두와 같은 26개 지점에 더하여 칼리닌그라드를 추가하여 합계 27개 지점으로 한정하는 조치가 강구되었다(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33호).

이는 대두나 대두유 수출을 실질상 중국에 한하여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칼리닌그라드에 대해서는 주로 남미에서 수입되는 대두의 착유 거점이 되고 있어, 수입 대두에서 생산되는 대두유까지는 수출 규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생각된다.

③ 해바라기유 수출물량 할당 도입

EAEU 역외 수출에 대해서 기존의 가변수출관세에 더해 2022년 4월 15일~8월 31일 사이 150만 톤의 수출수량 할당(쿼터 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가)이 적용되었다(2022년 3월 31일자 정령 제548호). 이 때, 지표수출가격 산출과 관련되는 재검토도 행해지고 있다. 산출의 근원이 되는 가격 데이터에 대해서 Refinitiv SA의 우선순위를 내려 러시아의 모스크바 상품거래소와 산하의 전국상품거래소 등의 가격을 주로 이용하게 되었다.

④ 한시적 설탕 수출 금지 조치 도입

백당 및 조당(정제용 감자당(甘藷糖))에 대해서 2022년 3월 15일~8월 31일 사이에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단, 백당에 대해서는 EAEU 가맹국을 위한 수출을 허가제 하에서 인정하도록 하여, 벨라루스 수출용은 백당, 조당 모두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2022년 3월 14일자 정령 제361호).

(5) 무기비료 수출 규제

1) 당초의 조치

러시아는 질소비료 수출량 세계 1위, 인산비료 동 3위, 칼리비료 동 2위를 차지하는 세계 유수의 무기비료 수출국이다³¹⁾. 하지만, 국내의 무기비료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2022년 봄 파종기를 향해 국내 농업생산자에게 공급 확보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2021년 11월 3일자 정령 제1910호에 의해 무기비료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 도입을 결정하였다.

- ① 대상품목 : a. 질소비료 및 b. 질소, 인, 칼륨 중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영양성분을 포함한 복합비료 중 특정품목 지정³²⁾
- ② 적용기간 : 2021년 12월 1일~2022년 5월 31일
- ③ 조치의 내용: 대상 품목 적용 기간의 수출량에 대해서 a. 질소비료: 590만 톤, b. 복합비료: 535만 톤의 수량 제한(수출 킬터)을 마련한다. 수출킬터는 과거 수출 실적에 따라 비료메이커에 배분된다.

2) 그 후의 조치

품목별 수급이나 비료 메이커에 대한 배려로 규제의 강화·완화 양면의 조치가 강구되었다.

① 규제 강화: 질산암모늄 수출 금지

질산암모늄³³⁾에 대해서는 봄철 파종 작업에 있어서 수요가 높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2일~4월 1일 사이 수출이 금지되었다(2022년 2월 1일자 정령 제82호). 이 조치는 그 후 5월 1일까지 연장되었다(동 3월 26일자 정령 제472호).

② 규제완화: 수출물량 추가

2021년 12월 29일자 정령 2558호에 의해 당초 수출 수량 제한 대상 품목 중 질소비료의 일부³⁴⁾에 대해서 28만 톤의 수출 수량 킬터를 추가하였다(기간 2022년 2월

31) 러시아의 무기비료 수출량(2017-2019년 평균)은 질소비료 692만 톤(세계시장 점유율 15.2%, 제1위), 인산비료 295만 톤(동 7.0%, 제3위), 칼리비료 892만 톤(동 11.8%, 제2위)(FAOSTAT에서 원저자 계산)(원저자 주)

32) 구체적인 대상 품목은 질소비료에 대해서는 품목 코드 3102 10 100 0, 3102 10 900 0, 3102 30 100 0, 3102 30 900 0, 3102 50 000 0, 3102 60 000 0 및 3102 80 000 0, 복합비료에 대해서는 품목 코드 3105 20 100 0, 3105 20 900 0, 3105 30 000 0, 3105 40 000 0, 3105 51 000 0 및 3105 59 000 0이다(품목 코드는 HS 준거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경제활동 품목분류 코드에 의한다. 이하, ‘규제 대상 질소비료’, ‘규제 대상 복합비료’ 라고 총칭).(원저자 주)

33) 수출 금지 대상이 된 질산암모늄의 품목 코드는 3102 30 100 0 및 3102 30 900 0.(원저자 주)

34) 대상 품목의 코드는 3102 10 100 0 및 3102 10 900 0.(원저자 주)

1일~5월 31일). 또한 2022년 4월에도 수출 수량 쿼터 추가가 이루어지고³⁵⁾, 기간에 대해서도 2022년 8월 말로의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³⁶⁾.

3) 조치의 영향

위의 규제 강화와 완화의 결과, 수출 수량 쿼터는 질소비료 약 5.7백만 톤, 복합비료 약 6.1백만 톤이 되었다³⁷⁾. 2019년 12월~2020년 5월과 2020년 12월~2021년 5월의 각 반년 간의 평균 수출 실적은 규제 대상 질소비료가 636만 톤, 동 복합비료가 543만 톤이며, 복합비료에서는 쿼터가 실적을 웃돌지만, 질소비료에서는 쿼터가 실적을 밑돌고 있다. 러시아로부터의 질소비료 수입량이 많은 브라질, 미국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주시하여야 할 것이다³⁸⁾.

(6) 식품 수입 금지 조치의 연장

러시아는 2014년의 우크라이나 위기에 즈음하여 구미 제국으로부터 강구된 경제 제재에의 대항 조치로서 동년부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하였다. 그 후에도 대상 품목이나 대상국을 늘리면서 이 조치를 계속해 왔다. 전회인 2020년 12월의 연장으로, 이 조치의 적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9월에 조치가 다시 1년간 연장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난 연장에 이어 대상 국가나 대상 품목에 변경은 없는 단순 연장이다³⁹⁾.

대상국은 미국, EU 회원국,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및 영국이며, 대상 품목은 식육(소, 돼지, 가금류), 수산물, 우유·유제품, 채소, 과일, 소금 기타이다.

35) ① 2022년 4월 15일자 정령 제670호로, 4월 18일~5월 31일 사이, 질소비료 23.1만 톤(품목 코드 3102 10 100 0, 3102 60 000 0, 3102 80 000 0) 및 복합비료 46.6만 톤(품목 코드 3105 20 100 0, 3105 20 900 0, 3105 30 000 0, 3105 40 000 0, 3105 59 000 0)의 수출 물량 규모의 추가, ② 2022년 4월 29일의 정령 제779호로, 4월 30일~5월 31일 동안 복합비료 50.1만 톤(품목 코드 3105 20 100 0, 3105 20 900 0, 3105 30 000 0, 3105 40 000 0, 3105 59 000 0)의 수출 물량 한도 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원저자 주)

36) 인터팩스(2022b).

37) 수치는 두 정령 결정시의 연방정부 웹사이트 설명에 의한다. 추가된 쿼터의 단순 합계가 아닌 계산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원저자 주)

38) 러시아의 규제 대상 질소비료의 2019~21년 3년간 총 수출량 3,977만 톤 중 933만 톤(23%)이 브라질, 643만 톤(16%)이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수치는 러시아연방 세관청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원저자 주)

39) 이번 식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은 2021년 9월 20일자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제534호 및 동년 9월 30일자 정령 제1653호에 의한다. 조치 내용에 변경은 없고 기간만의 단순 연장이다.(원저자 주)

5. 맺음말

러시아는 2018년부터 푸틴 대통령의 지시 하에 농산물의 수출 확대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이 방침을 보류하고 식품 가격 상승 억제를 목적으로 곡물이나 유량 종자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로 돌아섰다. 그 후에도 계속 되는 물가 상승 속에서, 이들 수출 규제 조치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해바라기유, 무기비료와 수출 규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해 왔다.

그리고, 러시아는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을 시작하였다. 러시아 측은 당초 단기간에의 결판을 상정하고 있었다고 여겨지지만, 우크라이나측은 구미 제국 등의 지원도 얻어내면서 끈질기게 항전을 계속하고 있어 전쟁은 장기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오늘날 밀이나 옥수수나 같은 곡물 외에 유량종자나 식물유의 주요 수출국으로, FAO 식량가격지수가 2022년 3월에 과거 최고 수준이 되는(FAO, 2022) 등, 전쟁에 따른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국제시장을 동요시키고 있다. 러시아는 다시 국제 농산물 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고 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

[참고 및 인용 문헌]

- 권태진, ‘우크라이나 사태의 식량 안보 영향’, 「세계농업」 2022년 5월호,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 김종진, 김지연, 정대희, 박성진, 김범석, 윤성주,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제곡물 시장
영향 분석」, KREI 농정포커스 205호(2022년 3월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개요’,
https://www.qia.go.kr/animal/prevent/ani_africa_pig_fever.jsp
- 차원규, ‘우크라이나 농업현황’, 「세계농업 정보」, 2022년 5월,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곡물 수출 규제(개요)’,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
(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러시아의 코로나19 사태와 식량안보’,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5호(2021년 10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어 문헌】URL은, 모두 간행일 현재 유효.

- 長友 謙治, ‘第3章 ロシア—農水産物純輸出国への転換, 輸出規制の拡大, ウクラ
イナ侵攻—’, 農林水産政策研究所 [主要国農業政策・貿易政策]プロ研資料 第
9号, 2022. 3,
- 長友 謙治, ‘[世界の 農業・農政]ロシアの穀物輸出規制’, Primaff Review No. 102,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7
- 長友 謙治, ‘[第5章] 러시아—코로나禍と食料安全保障—’ [主要国農業政策・貿易
政策]プロ研資料 第5号, 農林水産政策研究所, 2021.3
- 芦原雪絵 (2020) 「米国による経済制裁下におけるイラン石油産業の取り組み」『石
油・天然ガス資源情報』, (独)石油・天然ガス金属鉱物資源機構(아시하라 유키
에(2020)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하의 이란 석유 산업의 대처」 「석유·천
연가스 자원 정보」, (독일) 석유·천연가스 금속 광물 자원 기
구.)(https://oilgas-info.jogmec.go.jp/info_reports/1008604/1008904.html)
- 田畑伸一郎 (2021) 「守りを固めるロシア: 2020 年マクロ経済実績」『ロシアNIS 調
査月報』2021 年5 月号: 2-25, ロシアNIS 貿易会(타바타 신이치로(2021) [수
비를 굳히는 러시아: 2020년 거시경제실적] [러시아 NIS 조사 월보] 2021년 5
월호: 2-25, 러시아 NIS 무역회)

西濱徹 (2022) 「ロシアルーブル, 地政学リスクの懸念が原油高の効果を完全に相殺」『World Trends』2022 年1月19 日号, 第一生命経済研究所(서예철(2022) ‘러시아 루브르, 지정학 리스크의 우려가 고유가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 ‘World Trends’ 2022년 1월 19일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https://www.dlri.co.jp/report/macro/179370.html]

【영어 문헌】 URL은, 모두 간행일 현재 유효.

FAO(2022), FAO Food Price Index posts significant leap in March. [https://www.fao.org/newsroom/detail/fao-food-price-index-posts-significant-leap-in-march/en]

USEIA(US Energy Information Agency), Cushing, OK Crude Oil Future Controllact1(Dollarsper Barrel) [http://tonto.eia.gov/dnav/pet/hist/LeafHandler.ashx?n=PET&s=RCLC1&f=D]

USDA, PSD Online, Custom Query. [https://apps.fas.usda.gov/psdonline/app/index.html#/app/adv Query]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코로나19 situation dashboard for Europe.

[러시아어 문헌] 본문 중에서는 ‘일본어 번역의 저자명(간행년)’ 을 항목 말미에 제시한다. []안의 약칭으로 인용. URL은 모든 간행일 현재 유효.

Белая А.(2021), Мясной сектор откатится назад.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в 2021году составит около 11млн т, Агроинвестор, 7.12.2021.(베라야(2021), ‘식육 섹터는 후퇴. 2021년의 고기 생산은 약 11백만 톤’ 『아그로 인베스트』 2021년 12월호 웹 사이트 공개 기사) [https://www.agroinvestor.ru/analytics/article/37154-myasnoy-sektor-otkatitsya-nazad-obem-proizvodstva-myasa-v-2021-godu-sostavit-okolo-11-mln-t/]

ЕМИСС: Единая межведомственная информационно-статис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부처 간 정보 통계 시스템)[http://www.fedstat.ru/indicators/start.do][EMISS]

Интерфакс(2021), Иран вышел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среди покупателей российского зерна, Интерфакс, 19.10.2021.(인터 팩스(2021), ‘이란 이 러시아 곡물의 구입자 일등을’, 『인터팩스』 2021년 10월 19 일.)[https://www.interfax.ru/business/798215]

Интерфакс(2022a), Таможенная подкомиссия одобрила запрет на вывоз зерна в ЕАЭС и сахара за пределы союза, Интерфакс, 10.3.2022.(인터 팩스(2022a), ‘관세 소위가 EAEU용 곡물 수출과 EAEU 외부로 설탕 수출 금지를 승인’, 『인터팩스』 2022년 3월 10일.)

[<https://www.interfax.ru/business/798215>]

ИнтерФакс(2022b), Путин поручил продлить квоты на экспорт удобрений из РФ до 31 августа, ИнтерФакс, 27.4.2022.(인터팩스(2022b), ‘푸틴은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비료 수출 쿼터를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지시’ 『인터팩스』 2022년 4월 27일)[<https://www.interfax.ru/business/838226>]

Костырев А.(2019), Тегерану пополнят закрома-ОЗК начинает поставки пшеницы в Иран, Коммерсантъ, 26.12.2019.(고스튜레이프(2019), ‘테헤란에 곡물 창고가 추가된다-OZK(통일곡물회사)가 이란에 대한 곡물 공급을 개시한다’, 『코메르산트』, 2019년 12월 26일.)(<https://www.kommersant.ru/doc/4207458>]

Кулистикова Т.(2021a), Уже не драйвер, еще не тормоз. Какие Факторы влияли на агросектор в 2021 году, Агроинвестор, 12.2021.(크리스티코바(2021a), ‘이제 운전자는 아니지만, 아직 제동은 아니다. 어떤 요인이 2021년 농업 기업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그로 인베스톨』 2021년 12월호.)(<https://www.agroinvestor.ru/analytics/article/37151-uzhe-ne-drayver-eshche-ne-tormoz-kakie-factory-vliyali-na-agrosektor-v-2021-godu/>)

Кулистикова Т.(2021b), Урожай масличных обновил рекорд-Валовой сбор подсолнечника вырос на 17%, Агроинвестор, 27.12.2021.(크리스티코바(2021b), ‘유량작물의 수확은 기록 경신-해바라기의 수확량은 17%증가’, 『아그로 인베스톨』 웹 사이트 2021년 12월 27일.)(<https://www.agroinvestor.ru/markets/news/37296-urozhay-maslichnykh-obnovil-rekord/>)

Литва Е.(2022), Продажа валютной выручки и контроль за оттоком капитала укрепили рубль, Ведомости, 29.3.2022.(리투바(2022), ‘외화 수입의 매각과 자본 유출의 관리가 루브르를 강화’, 『베드모스치』 2022년 3월 29일.)(<https://www.vedomosti.ru/finance/articles/2022/03/29/915770-prodazha-valyutnoi-viruchki>)

Макимова Е.(2021), Растениеводство под давлением. Урожай основных агрокультур в 2021 году получился неплохим, но часть маржи от его реализации аграриям приходится отдавать, Агроинвестор, 12.2021.(막시모바(2021), ‘억압 아래 경종농업. 2021년 주요 작물의 수확은 나쁘지 않지만, 농업인은 판매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뱉어 내야 한다’, 『아그로 인베스톨』 2021년 12월호 웹 사이트 공개 기사)(<https://www.agroinvestor.ru/analytics/article/37152-rastenievodstvo-pod-davleniem-urozhay-osnovnykh-agrokultur-v-2021-godu-poluchilsya-neplokhim-no-chas/>)

Минсельхоз РФ,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http://mcx.ru/>[러시아연방 농업부 웹 사이트]

Ставки вывозных таможенных пошлин.(수출 관세율)
[<https://mcx.gov.ru/ministry/departments/departament-ekonomiki-investitsiy-i-regulirovaniya-rynkov/industry-information/info-stavki-vyvoznnykh-tamozhennykh-poshlin/>]

Мониторинг рынков АПК.(농산 시장 모니터링)
[<https://mcx.gov.ru/ministry/departments/departament-ekonomiki-investitsiy-i-regulirovaniya-rynkov/industry-information/info-monitoring-rynkov-apk/>]

Росстат, Официальный интернет-портал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http://www.gks.ru/>][러시아 연방 통계청 웹 사이트]

Росстат(2022),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одукции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и численность скота в хозяйствах всех категорий за январь-декабрь 2021года.(러시아 연방 통계청(2022), ‘전 유형의 농업 생산 주체의 2021년 1월-12월 축산물 생산과 가축 마릿수’)

ТАСС(2022), Экспортные пошлины на зерно принесли в бюджет РФ в 2021году почти 91млрд рублей, 27.01.2022.[<https://tass.ru/ekonomika/13543737>](타스통신(2022), ‘곡물 수출 관세는 2021년 러시아 연방 예산에 약 910억 루블을 초래’ , 2022년 1월 27일.)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Ф, База данных таможенной статистик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http://stat.customs.ru/apex/f?p=201:2:672649820124882:NO>] [러시아연방 세관, ‘통관통계 데이터베이스’]

Федеральная таможенная служба РФ, Таможенная статистик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러시아 연방 세관, ‘통관 통계’]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https://www.cbr.ru/>]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웹사이트]

나무위키, <https://namu.wiki/w/>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